

# 무엇으로 사를막는다

흑산도공항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2018.7.19)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공항건설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일시 2018년 7월 1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전남도청 앞 주최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 ❖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보도자료(목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연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 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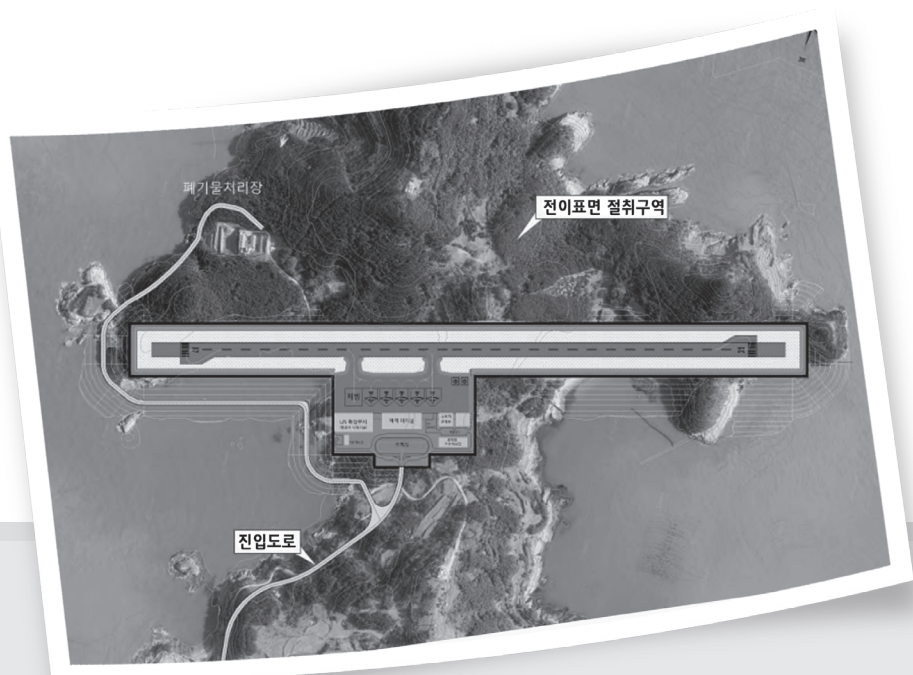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 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 이곳은 아직 희망이 있는 곳

글 / 제갈경희 (게스트하우스 달꾸메 운영)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살아있는 지구의 변화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낸 재앙인지, 이런 현상으로 힘들어 질 때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 잠깐 생각하고 얘기한다. 어항에 담긴 물고기처럼 지구라는 우주라는 대자연의 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하게 되었을까?

이십여 년 전 고양시로 이사를 했다. 새로 입주한 우리 아파트 옆에서 불법소각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 됐다고 동사무소와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나는 우리 라인 줄반장을 하고 있었다. 반장들이 모여 관계자들과 현장실사를 나가게 되었다. 2차선 도로를 사이로 다른 세상이 거기 있었다. 무허가 공장들과 숙소,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오페수, 주로 가구를 만드는 공장들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바로

옆 신도시는 최신식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쓰레기 수거차도 오지 않는 지역이었다. 당연히 분리수거도 안하고 버젓이 소각로까지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무심코 태우는 쓰레기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공무원은 실황 파악만 하고 우리 주민들이 환경운동연합 사람들과 함께 밤에 야경을 돌며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언론과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일년여 그곳이 정비되고 지금은 더 멋진 아파트단지로 개발 되어 있다. 그때 우리 동네를 위해 애써주는 고양환경운동연합에 대한 보답으로 아파트 주민 여럿이 후원을 약속했다. 그 인연이 목포에 내려와서도 이어진 것이다.


매달 소식지나 SNS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보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여겨진다. 오랜 회원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은 아니더라도 내 나름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집에선 '플라스틱용품을 집에 들여올 땐 한번은 생각하자'가 생활의 모토이다. 장바구니 사용, 에어컨 사용 자제, 가능한 걷기, 휴지사용 줄이기 등등.

목포로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태도를 보게 된다. 파수꾼 역할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 계속 알리고 교육하는 일도 환경운동연합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란 생각을 한다.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잘못은 잘 알리지 못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변하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 아름다운 새소리, 그리고 바다, 산, 섬.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가꾸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곳 일뿐이다. 빌려 쓰는 집에 못 하나 맘대로 박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많이 망가진 그곳을 떠나 여기서 아침을 맞을 수 있음을 감사한다.

이곳은 아직 희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기 다 립 니 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수필, 시, 사설, 축하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 5 · 18 목포사적지와 근대문화유산 탐방 두 번째 후기

글 / 진지연 (목포시 골목길해설사)

6월의 마지막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걷기모임이 있었다. 2018년 6월30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탐방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안내문자가 투어 전날 도착했다. 설령 많은 비가 오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미였다.

당일 아침 출발지인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에 집결할 때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문화와 역사는 조상현 회원님이 해설해 주셨고, 5.18사적지와,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객재구 회원님이 해설해 주셨다.

벌써 1개월 전의 일이다.

우리가 걸었던 길은 난 잘 모르는 길이어서 호기심과 설렘으로 시작했다.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을 시작으로 역사의 길 걷기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비가 오고 후텁지근한 날씨였지만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주는 즐거움으로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역사의 길 걷기는 여러 장소가 있었지만, 이중 내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곳을 중심으로 그 날의 기억을 더듬으려 한다.

첫 번째는 탐방 모임장소였던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이었다. 지금은 오거리문화센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곳이 목포중앙교회였을 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모임이 진행되었고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건어물 거리 방향으로 루미나리에 도로를 조금 걸으면 구법원이었던 지금의 목포제일교회에 이르렀다. 입구에 옛 법원이었다는 작은 표지석만 남아 있다. 지금까지 난 이곳이 법원이었던 곳이라 알고는 있었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진 일은 잘 몰랐다. 일제강점기 소작쟁의로 인해 투옥된 신안 섬 이웃들 수백명이 배를 빌려 목포까지 와서 이들과 함께 아사동맹을 강행했던 곳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석이나 안내문이 없어 아쉬웠다.

만호동 거리를 걷다보면 70,80년대 목포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안철 선생님 흔적이 남아있는 약국 건물에 다다르게 된다. 민주화운동을 위해 2번이나 투옥되었고, 사비를 털어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약국 벽면 가득 시국에 대한 안내문이 붙여졌다는 이야기, 정보원과 경찰들이 끊임없이 이 약국 앞을 오가며 감시했다는 이야기, 서슬 퍼런 군부독재시대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존경스럽다. 목포의 민주화운동을 이끄셨던 선생님을 생전에 뵈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목포항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옛 중앙정보부(중정) 목포분실 건물 터를 마주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것을 알고 목포시민은 중앙정보부 목포분실로 물러가 불을 질렀다한다.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광주가 봉쇄당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렬하게 함께 동참했던 도시가 목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그 목포시민이 강한 분노의 표출이 중정 방화였다니?...

목포에 내려온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사실이냐고 몇 번을 되묻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한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어떻게 중정을 불태울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은 나도 했던 질문이다. 목포는 이렇게 5.18뿐만이 아니라 87년 6월항쟁 때도 강렬하게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었다.

가끔 옛날의 목포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시절을 상상해 보곤 한다. 치열했던 그 자리에 없었지만 목포의 민주주의 함성이 내 귀에 들려오며 가슴이 알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오른다.

목포와 목포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소들이었다.





6월

- 01일(금) 도시환경위원회 진행상황 회의
- 04일(월)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 09일(토) 향도여중 환경동아리 4차 교육
- 14일(목) 자원순환연대 워크숍(대전 NGO 지원센터)
- 15일(금) 6월항쟁 31주년 기념행사(평화광장)
- 20일(수) 빈용기 반환실태조사
- 21일(목) 제207차 집행위원회
- 22일(금) 판문점선언 이행, 8.15민족공동행사 6.15통일열차 실무기획 회의
- 23일(토) [초청강연회]도시공원 일몰제! 알고 계시나요?
- 24일(토) 창립21주년 기념 회원 만남의 날
- 26일(화)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회의
- 27일(수) 국립공원협치위원회 / [초청강연회]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미래
- 30일(토) 목포환경운동연합 도심견기(5.18사적지와 근대문화유산탐방)

· 향도여중 환경동아리 4차 교육



· 도시공원일몰제 초청강연회



· 창립21주년 기념 회원 만남의 날



· 목포환경운동연합 도심견기(5·18사적지와 근대문화유산탐방)



- 02일(월) 2018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확대 전략수립 워크숍(천안)~3일
- 03일(화) 환경컨설팅(서부초등학교 유치원)
- 04일(수) 2018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
- 05일(목)~07일(토) 우이도 전통 지식 조사(문화 환경)
- 10일(화) 흑산공항 반대 기자회견(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11일(수) 녹색연구회 월례 모임
- 14일(토) 청소년환경서포터즈 교육 / 회원과 함께하는 트래킹(영산기맥)
- 19일(목) 흑산공항 반대 기자회견(전남도청)
- 20일(금) 학교 석면해체 모니터단 조사(전남체육고)
- 25일(수) 집행위원회 간담회
- 30일(월) 해안쓰레기모니터링(진도 하조도 / 해남 묵동리) /세월호 부스 지킴이
- 31일(화) 학교 석면해체 모니터단 조사(미향초등학교)

· 전국회원확대 전략수립 워크숍



· 청소년환경서포터즈 교육



· 흑산공항 반대 기자회견(전남도청)



· 해안쓰레기모니터링

[회계보고] 6월

(유)사람과사람/(유)서남환경/(주)세일산업/(주)보해양조/우진건설/목포대성신탁/(주)현성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명곤/강순택/강영규/강제석/강창원/강철수/강혜선/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국순천/김경미/김경완/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근/김병옥/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선아/김성룡/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연호/김영남/김영미/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용기/김윤임/김은미/김인수/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연/김진영/김창식/김창훈/김탁/김태웅/김현곤/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희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노애란/류미현/마흥식/모원종/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박성희/박순미/박영운/박용일/박용호/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수정/백재봉/서병권/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상훈/소복례/손두호/손철주/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수/양현주/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숙향/오영출/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민/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국휴/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상환/이승용/이승환/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정원/이종훈/이준화/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주/이현진/이형광/이화덕/임경숙/임성진/임진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재연/전경란/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울/정귀정/정규규/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희/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영인/조완우/조원기/조혜향/진선우/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비호/최선/최송준/최영섭/최영은/최예화/최완수/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경/최휘철/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허진홍/홍광복/홍선기/홍성혁/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6월 결산보고 (6월 1일 ~ 30일) |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회비	개인회비	4,265,000	사업비	교육사업	154,000
	단체회비	290,000		조사연구	
소계	4,555,000	홍보비			
행사 수입	180,000	행사비		196,000	
후원금	450,000	연대사업		360,070	
기타 수익	130,000	소계	350,000		
이자 수익	1,803	회의비	총회비		
			위원회비	110,000	
		소계	350,000		
		관리비	급여	3,270,000	
			복리후생비	524,320	
			퇴직적립금	272,500	
		소계	110,000		
행사수입		업무추진비	출장비	62,400	
- 6월30일 도심걷기 행사 참가비			활동비	120,000	
		소계	3,794,320		
후원금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 디자인그리다(소식지발간업체) 250,000			수선비		
- 정기후원금 200,000			도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371,540	
		소모품비	35,000		
		소계	4,086,720		
		환경 기금	100,000		
		제세 공과금			
		지급 수수료	82,200		
당월수입금	5,316,803	당월 지출금	6,176,030		
전월이월금	2,230,730	통장 잔액	1,371,503		
합계	7,547,533	합계	7,547,533		



## [회계보고] 7월

(유)사람과사람/(유)서남환경/(주)세일산업/(주)보해양조/(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탁/우진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명곤/강순택/강영규/강제석/강창원/강철수/강혜선/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국순천/김경미/김경완/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근/김병옥/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선아/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연호/김영남/김영미/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용기/김윤임/김은미/김인수/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연/김진영/김창식/김창훈/김탁/김태웅/김현곤/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노애란/류미현/마흥식/모원종/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박성희/박순미/박영운/박용일/박용호/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학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수정/백재봉/서병권/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상훈/소복례/손두호/손철주/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형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수/양현주/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숙향/오영출/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관/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태/이국희/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업/이상환/이승용/이승환/이승환/이우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정원/이종훈/이준화/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태환/이현숙/이현정/이현주/이현진/이형광/이화덕/임경숙/임성진/임진옥/임희/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재연/장진실/전경란/전성열/전용필/전준수/정거배/정고은/정권울/정귀정/정금규/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영희/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우/조원기/조혜향/진선우/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비호/최선/최승춘/최영섭/최영운/최예화/최완수/최은기/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태영/최화영/최화철/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하진홍/홍광복/홍선기/홍성혁/황혜미

### | 목포환경운동연합 7월 결산보고 (7월 1일 ~ 30일) |

수입			지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회비	개인회비	4,292,000	사업비	교육사업	54,000
	단체회비	390,000		조사연구	
소 계		4,682,000		홍보비	
행사 수입				행사비	
후원금	2,164,000			연대사업	168,940
기타 수익	130,000		소 계		222,940
이자 수익			회의비	총회비	
				위원회비	68,000
			소 계		68,000
			관리비	급여	4,290,000
				복리후생비	574,320
				퇴직적립금	275,000
			소 계		5,139,320
			업무추진비	출장비	857,500
				활동비	80,000
			소 계		937,5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수선비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167,060
			소모품비	15,000	
			소 계		200,060
			환경 기금	100,000	
			제세 공과금	10,730	
			지급 수수료	83,680	
당월수입금	6,976,000		당월 지출금	6,762,230	
전월이월금	1,372,273		통장 잔액	1,586,043	
합계	8,348,273		합 계	8,348,273	



##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생각



고릴라는 왜 핸드폰을 미워할까? 아프리카 콩고는 고온에서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진 탄탈의 주생산지이다. 이 탄탈이 핸드폰의 주요 부품 원료로 쓰이면서 값이 20배나 뛰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탄탈 광산으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광산이 위치한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릴라 서식지도 황폐해졌다. 무엇보다 환경에 관한 통계와 정보가 많이 수록된 책의 특성상 5년 전과 바뀐 내용을 최신의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스위치를 켜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서는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었고, 키가 작은 저자가 자신에 맞게 옷을 줄여 입는 에피소드로 시작되는 '내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은 새롭게 수록된 내용이다.

[추천글] -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에 딱 걸맞은 책이다. 늘 참여하고 싶지만 멀리 있는 것 같았던 환경운동이 실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국민필독서이다.

지은이 : 박경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환경이야기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생활을 담은 환경책을 주로 쓰고 있다.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어린이를 위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그린잡』, 『지구인의 도시사용법』, 『여우와 토종씨의 항방불명』 등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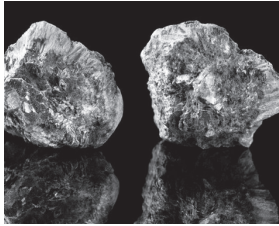


##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에너지의 날'로 제정한 날이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로, 이 날을 기념하여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여 범국민적 행사로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에너지의 날에 여름철 최대전력 소비시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에어컨 끄기를 독려하고, 밤 9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주변을 기점으로 전국 동시적으로 5분간 전등 끄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침묵의 살인자, 석면의 모든것



혹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석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였던 건축자재였지만, 그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규정돼 2015년 4월부터 국내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지어진 초, 중, 고등학교의 천장의 일부가 바로 이 석면 자재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평소에는 그 위험성을 잘 모르기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도대체 석면이 무엇이길래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석면(石綿)'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100만년 전의 화산 활동에 의해 생겨난 화강암의 일종으로,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 이상 되는 길쭉한 모양을 가진 자연 광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광물이 아닌 비슷한 특성을 지닌 섬유 모양을 한 광물들을 통틀어 석면이라고 하죠. 석면의 섬유가닥은 매우 가느다랗지만 잘 끊어지지 않아 옷감처럼 베투로 찢 수 있으며 부드러운 특성이 있는데요,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열과 화학약품에 강하며 불에 잘 타지도 않습니다. 또한 전기가 잘 통하지도 않고 잘 닳지도 않으며, 증발하지도 않고 물에도 녹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값도 매우 싼 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석면은 상업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쓰여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석면으로 짠 천이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석면이 사악한 힘을 막는 마법의 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전이나 장례용 등불의 심지를 석면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왕족이 죽으면 그 시신을 덮는 담요를 석면으로 만들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한때 석면은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로 찬사 받으며 매우 값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 『석면은 왜 위험할까요?』

그런데 이런 석면이 왜 지금은 위험하다고 알려진 걸까요?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사람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로 작아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중에서 떠다니다가 바닥까지 가라앉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석면 같은 광물질은 몸에서 스스로 정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오랫동안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 몸의 조직과 염색체를 파괴시켜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며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석면이 이처럼 유해한 물질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야 석면의 해로움에 대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5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지된 석면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어요!』

석면은 그동안 내구성과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고 값이 저렴하다는 이점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어떤 용도로든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하는 일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건물이나 지하철 등 오래된 건물은 아직도 석면을 함유한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공기중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현장, 오래된 배관의 수리, 또는 인터넷 개통을 위해 벽에 구멍을 뚫을 때에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환경재단 발체〉

8월 30일 목요일대화마당

### 흑산도 주민에게 듣는 "내가 흑산 공항을 반대하는 이유"

국토부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에 추진되어 오던 흑산공항 건설이 7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9월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성, 경제타당성, 환경성을 모두 무시한 채 건설을 시도중인 흑산도 예리 일대 1,160m 규모의 50인승 소형 항공기용 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흑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바라보는 흑산공항 건설 반대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8월 30일(목) 오후 6시30분
- 장소 : 목포환경운동연합 3층 회의실

회원 소식

6~7월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 최송춘 추천 : 임태삼, 이원기, 최현영, 박필수, 오미선, 김명희, 송두호
- 이현승 추천 : 김재혁, 김병욱, 송원천, 김주재, 강동호
- 박성원 추천 : 양창숙      • 고광업 추천 : 유은숙
- 최은기 추천 : 정인숙      • 박갑수 추천 : 대성신협
- 임경숙 추천 : 박서근



## |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 신청서

- 이름
- 휴대전화 (□수신)
- 주소 (□집 □직장/ □우편물수령)
- 이메일 (□수신)

후원회원 신청서

- 은행명
- 계좌번호 (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는 출금이 안됩니다)
- 후원액 □15,000원 □20,000원 □30,000원 □직접입력( )
- 예금주 이름
- 예금주 생년월일
- 출금일 □10일 □20일 □28일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동의 안함  
주민번호 \_\_\_\_\_
-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2-1)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CMS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이용 목적
휴먼소프트웨어	후원정보 및 후원금 결제정보	후원자관리 및 후원금 결제정보관리/문자 및 이메일 발송
금융결제원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은행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전화번호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등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보